

협회소식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10차 회의

- 일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회의실
- 참석 : 김태수(위원장), 강순애, 김기영, 서은경, 오경묵, 정동열
(이상 위원), 이용훈, 심효정, 박지영(이상 간사)
- 회의안건 : 1) 전반적인 작업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2)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집필 관련 논의
3) 기타
- 회의내용 :
 - 1) 전반적인 작업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 2)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집필 관련 논의
 - 표제어 비교(일부 분야 대상) 검토결과
 - 국문표제어 수정, 영문표제어 수정, 기호 표기 등
 - 서지학 분야 검토
 - 분야내 특정 디스크립터의 삭제, 영역조정 필요 용어
논의, 기록학 분야 용어 추가, 편집양식에 대한 논의
 - 정보학 분야 검토
 - 대표어와 비대표어의 결정, 일부용어 삭제
 - 3) 기타
 - 다음 회의 일정
 - 11차 회의: 12월 30일(화)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학
술정보원 6층 회의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 · 경북지구협의회 2008년 추계 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대구 · 경북지구협의회(회장: 김홍만)는 관종별 사서들의 실무지식 함양을 위하여 2008년 추계 세미나를 11월 19일(수), 포항해병청통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공공 · 대학 · 학교도서관 등 협의회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130여명이 참석한 이 행

사는 김형준 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홍만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조정혜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강사의 주제강연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주제강연〉

- 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설계
/조정혜(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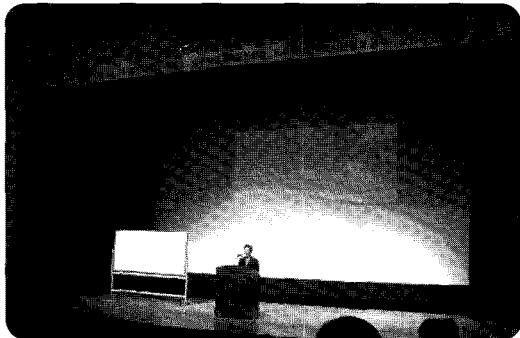
〈주제발표〉

- 대구경북지역 공공도서관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직원,
자료, 시설을 중심으로
/김수현(경북도립의성도서관)
- KDC 제4판 종교분야의 전개방안
/배영활(경북대학교치의대도서관)
- 찾아가는 도서관 활용수업 운영사례: 달성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김나영(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기사 및 사진 제공: 한국도서관협회 대구 · 경북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 특별세미 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회장: 고화석)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서관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2월 9일(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공 · 학교도서



관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도서관인 210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서관인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사고해 보는 한편 지역 도서관인간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2009년도 신임 회장단에 대한 소개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회비 인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프로그램

〈주제강연〉

·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도서관인의 역할

/임형칠(2008한국알래스카오지탐사대장, 정광고등학교 교사, 조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총회 안건 심의 및 보고〉

· 신임 회장단

회장 : 구제풍 목포공공도서관 관장

사무국장 : 권남익 목포공공도서관 문헌정보과장

간사 : 조정희 목포공공도서관(연락처: 061-270-3831, library54@hanmail.net)

· 2009년 회비 인상 보고

[기사 및 사진 제공: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인사발령

2009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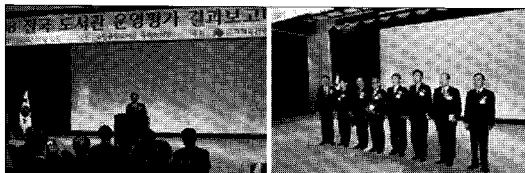
이경구(李景求) 공로연수

이현주(李賢周)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서리 겸 회원지원부장

이용훈(李龍勳) 도서관발전재단 사무국장 겸 사업진흥부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소식

2008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발표



장관 축사

행사 참석자들



우수기관 시상식

수상기관 기념 촬영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월 25일(화), '2008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상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서울 정독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경남 토월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상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제천시립도서관과 동두천시립도서관이, 학교도서관 부문은 창곡여자중학교도서관과 민족사관고등학교도서관이, 병영도서관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부산 구포도서관을 비롯한 36개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9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공공도서관 540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총 2,31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평가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의지를 복돋우고, 개별 도서

관에게는 도서관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은 12월 12일(금), 유인촌 장관, 이용남 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우수 도서관 프로그램 전시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소위원회 개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2월 9일(화)과 12일(금), 양일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상완 위원장 비롯한 이용남, 남태우, 윤희윤, 서진원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중앙행정 기관과 16개 시·도에서 수립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시행계획(안)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은 2008년 12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과는 11월 17일(월), 기획단 회의실에서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비블리아학회의 곽철완 교수(강남대)

가 책임을 맡았으며, 안인자 교수(동원대), 박미영 관장(노원정보도서관)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된 이번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효과적인 문화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황 조사와 우수 문화프로그램이 발굴·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정책 관계자 워크숍, 김해시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중앙과 지방의 도서관담당자간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와 직원들의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정책 관계자 워크숍'을 11월 20일(목)과 21일(금)(1박2일) 김해시에서 개최하였다. 김해 화정글램도서관과 한옥체험관 등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임원선 단장을 비롯한 기획단 직원, 16개 시·도 도서관정책 관계자,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 첫날인 20일(목)에는 한상완 위원장의 21세기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특강과, 김종간 김해시장의 '책 읽는 도시 김해' 추진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부장의 지역도서관 협력 사례 발표와 시·도의 도서관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해 화정글램도서관 시설을 텁방하면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날인 21일(금)에는 '가야의 땅 투어'로 대성동 고분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김해미술관 등 김해의 주요 문화시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진행

화정글램도서관 견학

도서관 민간위탁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과는 11월 24일(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도서관 민간위탁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과제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제도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안이 발표되었으며, 연구책임을 맡은 배순자 교수(전주대)의 사회로 토론과 방청석 질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경영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제도개선팀은 11월 24일(월)부터 12월 8일(월)까지 2주간에 걸쳐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정책 연구과제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웹 사이트 접속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주제전문사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도서관 사서 및 직원, 문헌정보학과 교원 및 학생,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사서 1032명(58.9%), 도서관 직원 142명(8.1%), 문헌정보학과 교원 48명(2.7%),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354명(20.2%), 일반인 176명(10.0%)으로 총 1,752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도서관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사서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현행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과는 12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연수원에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시범활용 및 사연, 관련 주제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13개 지역 38개 도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 직원

들의 사기진작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임원선 단장 인사말



◀ 문화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설명

[기사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문화』는 회원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도서관문화』에서 다루어지는 아래 주제에 대한 회원여러분들의 옥고(玉稿)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도서관 소식
- 회원들의 인사동정
-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실무와 학술이론 등에 관한 논문
- 도서관계와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 기타

《보내주실 곳》

전 화 : 02-535-4868

팩 스 : 02-535-5616

E-mail : libculture@kla.kr

주 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회원협력팀 『도서관문화』 편집담당자

국내 소식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권의 지역문화발전방안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8일(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권의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문화발전방안은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확대,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의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3조 3천억 여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이밖에 문화기반시설의 복합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문화서비스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 251개관, 박물관·미술관 180개관, 문예회관 25개관이 추가 건립되는 한편, 지역여건에 따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또한 기존문화시설의 이용도 제고와 문화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16개관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등 문화시설 간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문화발전방안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체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2월 5일자]

국립중앙도서관, 제2회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유공자 포상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성남기)은 제2회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유공자로 개인 9명, 단체 3기관을 선정·시상하였다. 이 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협력 업무를 통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 및 문화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공공도서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도서관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시상식은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수상자 명단

•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단체: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개인: 표두천(창원도서관)

• 우수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단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개인: 이충미(천안시중앙도서관), 서유경(전라남도교육청)

• 장려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단체: 울산중부도서관

개인: 김성득(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최지혜(부평기적의 도서관), 김명화(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 김원규(신탄진도서관), 박은경(경기도립성남도서관), 김정자(김제시립도서관)

[기사 및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중앙일보와 정보교류협력 협정 체결 및 다국어 검색코너 설치

국회도서관(관장 : 유종필)은 11월 25일 오후 3시,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대표이사사장 : 송필호)와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지식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마련한 이번 협정은 학술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교환, 디지털 신문이용, 저작권 이용허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번 협정으로 중앙일보는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회도서관의 각종 입법 및 학술정보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부터 전국의 언론사, 대학 및 정부기관, 지방의회, 공공도서관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온 국회도서관은 이번 중앙일보와의 협정으로 946개 기관과 협정을 맺게 되었다.



또한 11월 28일(금), 국회의정관 3층 디지털입법자료센터에 다국어 검색코너를 설치하고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등 5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위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국어 검색코너는 정보 취약계층인 외국인 이용자에 관심을 두어 온 유종필 국회도서관장이 제안하여 설치한 것으로, 컴퓨터에 영어권 이외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5개 언어권의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사용언어가 지원되는 키보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1월 28일,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 상원의장 일행이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프랑스어, 아랍어 검색을 시연하였다. 유종필 관

장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 등 다문화 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데 비해 이들의 정보이용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라며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국회도서관의 다국어 검색코너 이용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다국어 검색코너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였다.

[기사 및 사진 출처: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시각장애인 독서증진을 위한 맞춤형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배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증진을 위해 맞춤형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71종 7,000여 권을 제작, 전국의 주요 맹학교,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50여 곳에 배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수는 21만여 명에 달하나, 시각장애인의 일반인과 동일한 독서환경을 누리기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이 끊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원회의 점자 및 녹음도서 제작 지원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KBS 성우극회(회장: 안경진)가 녹음도서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음성의 녹음도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고품질 녹음도서를 통해 시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발달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과도한 비용으로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동용 통합도서(일반 도서에 투명 점자라벨을 붙여 시각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도서)의 제작종수를 2007년 대비 2배로 늘려 시각장애 아동들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보도자료, 12월 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100여개 공공도서관에서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12월 7일(일)~14일(일)까지 전국 100여 개 도서관에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인권영화 상영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행사로, 전국 15개 지역 107개 초·중·고교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하였다. 상영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노동자 차별을 다룬『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박찬욱 감독), 외모 차별을 다룬『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 장애 차별을 다룬『대륙횡단』(여균동 감독),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다룬『남자니까 아시잖아요』(장진 감독) 등 총 29편(각 15분 분량)으로 국내 유명 감독들이 참여했으며,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

[기사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2월 8일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KERIS 심포지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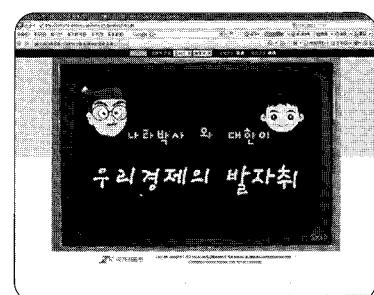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과덕훈)은 “교육학술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08 KERIS 심포지움을 11월 21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야후코리아(주), 한국교육신문사 등이 후원하였고 과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비롯하여, 김명훈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정책관, 양승택 ETRI 초빙연구원(전 KERIS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디지털문화화 교육정보화”를 주제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이사가, “교육패

러다임변화와 이러닝 2.0”을 주제로 과덕훈 KERIS 원장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초·중등교육정보화/교육정보화 실천사례, 정책연구·평가/교육행정정보화·정보보호, 고등교육정보화/학술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기록원, 어린이용 교육콘텐츠 오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록물을 활용하여 어린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국가기록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제작,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11월 20일(목)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콘텐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기획 공모전을 개최, 대전 지족초등학교 홍서연 교사의 “우리나라 경제의 발자취”를 최우수기획안으로 선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콘텐츠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의 교과내용에 맞추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와 시청각기록물(약 15만건)중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을 선정해 구성하였다.



[<http://contents.archives.go.kr/next/education/intro.do>]

기존의 수업자료가 몇몇 사진과 영상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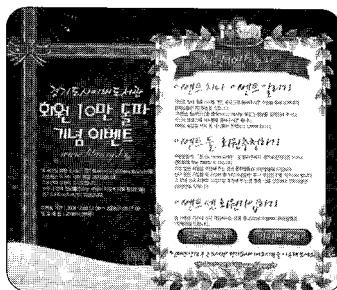
으며, 온라인서비스 외에도 각급학교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CD로도 배포할 예정이며, IPTV(메가TV)에서 서비스 예정인 <IPTV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문화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도자료, 11월 19일자]

경기도, 제5회 도서관 정책개발 작은세미나 개최 및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 10만 돌파 기념 이벤트 개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11월 19일(수), 시흥어린이도서관에서 도내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만 잘 써도 도서관을 홍보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도서관 정책개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역사회 안에서 도서관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유지·성장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언론홍보 방안을 학습하고 실무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유영석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대표가 “PR 기획과 실행실습”을, 박영만 한국마케팅 연구소장이 “기자는 이런 보도자료를 원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지역 도서관의 사서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서관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각 도서관의 예산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

상과 각 공공 도서관 장서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지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회원이 지난 11월 25일(화)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회원 1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이벤트 알리기, 회원추천하기, 회원가입하기 등 총 3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에서 도내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종합목록을 통해 도내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소장 정보를 확인하고 타 시·군의 자료까지도 대출 신청 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향토자료·행정자료 등을 원문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양질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사출처: 경기도청 보도자료, 12월 5일자,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팀 (031)249-4746]

대전광역시, 2008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 개최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11월 27일(목)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8년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한밭도서관(관장: 오재섭)에서 개최하였다.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의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공공도서관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독서문화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공공 도서관 사서의 역량 강화와 우리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이러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07년 대전은 시민 1인당 1.06권의 장서로 6대 광역시 중 1인당 장

서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주제발표〉

- 사회문화적 상징으로서의 도서관/김정희(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도서관의 고객만족 경영/오동근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발전과정을 통해 본 정책의 방향 /안인자(동원대학교 교육서비스문화정보과 교수)

[기사출처: 대전광역시청 보도자료, 11월 25일자]

전라북도, 내년에 공공도서관 5개 짓는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2009년 도내 5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11월 24일(월)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비 53억원과 지방비 90억원 등 총 143억원을 들여 익산과 남원, 완주, 고창, 부안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짓기로 했다. 이중 남원 시립도서관과 고창 농어촌도서관, 부안 계화도서관은 내년 말 완공하고 완주 군립중앙도서관과 익산 부송도서관은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전주 평화도서관, 아중도서관등 2개소와 익산 모현도서관을 BTL(임대형) 사업으로 짓기 위해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없는 진안군과 순창군에도 조속히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민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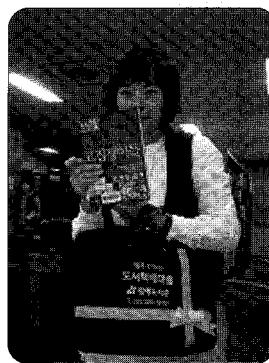
[기사출처: 연합뉴스, 11월 24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내 8개 도서관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서귀포시는 관내 8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12월 1일(월) 밝혔다. 이제까지 도서관별로 홈페이지가 분리 운영되다보니 시민들이 도서 대출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시는 2008년 2억 7000만원을 들여 분리된 도서관 전산망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귀포시 관내 도서관 자료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여 제공할 것도 계획 중이다.

[기사출처: 제민일보, 12월 1일자]

김해도서관, 선착순 50명 도서택배대출 서비스



김해도서관(관장: 임춘근)은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및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노인, 다문화가정)의 독서기회 제공 확대 및 독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복꾸러미 도서택배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서택배대출서비스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 도서관이 없는 원거리(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접수받아 하며,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은 1회 5권으로 14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1회(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경남신문, 12월 3일자]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2008 X-mas 맞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북스타트 특별행사 개최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관장: 권태훈)은 “2008 X-mas 맞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북스타트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북스타트코리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2월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된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제공하고, 아가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사회적 공동 육아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동구보건소, 반야월 아띠도서관, 민들레봉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한국 SOS어린이마을, 애생보육원, 육영 학사, 신생원, 베다니 농원등 13개 기관 및 민간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55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며 부모나 양육자에게 자녀 독서지도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도서관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을 별도로 가짐으로 해서 자녀들이 우리 독서문화에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053)940-4144]

천안시중앙도서관 성거분관 ‘다문화 축제’

천안시중앙도서관(관장: 임홍순) 성거분관은 12월 4일(목) 성거, 직산, 입장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과 도서관 이용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한마음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주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문화 체험행사에 이어 초청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마당 축제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 20여명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각국의 차(茶)문화를 체험하며 아시아인으로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다. 이주여성들은 또 출신 국가의 전통공예품을 서로에게 소개하며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기사출처: 대전일보, 12월 4일자]

포항시립도서관, 오디오 북(AUDIO BOOK) 서비스 제공

포항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 북 200여종을 구입해 이용자들이 가정에서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어를 작동시켜 PC를 통해 인터넷 방송처럼 오디오 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드라마, 토크쇼, 강연식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오디오 북은 책읽기를 꺼리거나, 시간이 없는 비독서 인구 및 책을 읽기 힘든 노령인구와 시각장애인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간편하고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도록하여 새로운 독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오디오 북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www.phlib.or.kr)에서 디지털콘텐츠코너를 통해 오디오 북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사출처: 포항뉴스, 11월 26일자]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 2008년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 개최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회장: 도봉섭)는 ‘2008년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를 11월 21일(금) 김해시 장유도서관(관장: 김경식)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도봉섭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회장이 개회사

를, 이병호 김해시 부시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전체 45개회원 도서관 중 40개관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남지역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과 직원 자질 향상의 장이 되었으며, 초청공연, 기조강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 왜 공공도서관이 문화·복지의 중심이어야 하는가
/한상완(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 다문화 자료의 효과적인 입수방안
/조용완(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 연계
/서일민(청주기적의도서관장)
- 도서관 협력, 그 중요성과 가능성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사업진흥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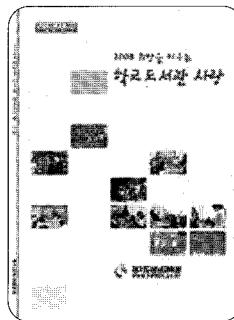
[기사제공: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 055-314-6890]

강원도교육청, 2009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서관 설치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23억원으로 도서관이 없거나 환경이 열악한 학교 54개교를 선정, 학교 규모에 따라 3,000만~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2009년 6월까지 도서관 설치사업을 끝낼 방침이라고 12월 18일(목) 밝혔다. 또 2009년 지방비로 확보한 6억 8000만원을 투입, 도서관 설치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초등학교(4학급 이하 26개교)에 ‘교실 도서관’을 설치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됐던 중·고교에 대해서도 도서관 환경개선 및 장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12월 19일자]

경기도 성남교육청, 도서관 운영 길라잡이 ‘희망을 키우는 학교도서관 사랑’



성남교육청(교육장: 김광래)은 독서교육의 주체이며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핵심 교육시설인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겸비한 사서교사 및 사서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운영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담당 인력의 교체 및 소수 운영 체제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최근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서인 『희망을 키우는 학교도서관 사랑』을 배포하였다.

이 책은 학교도서관 수서, 장서 관리, 열람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도서관 활용수업 및 논술수업의 우수 사례, 문학기행, 소식지 제작, 독서클럽 운영, 작가와의 만남, 독서교실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시 체크포인트 및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 기호일보, 11월 25일자]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교장연수회 및 경북지역 특성화도서관운영 평가보고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부교육감: 임승빈)은 “학교도서관,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11월 27일(목)과 28일(금) 초등학교장 500명, 중·고등학교장 480명 등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경일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쾌적



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학생들에게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혀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학교도서관 분야 연구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계명대학교 김종성 교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경일대학교 이남교 총장이 “교육의 중요성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이홍수 교수가 “문화 예술 향유를 통한 심미적 이성인의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과 피아노 연주를 하였다.

또한 12월 17일(수) “2008 특성화도서관운영 평가보고회”라는 주제로 경북 도립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경북 지역 특성화도서관운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평가보고회는 금년도 구미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립도서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실시한 특성화도서관을 운영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보고하는 자리였다. 각 주 제별로는 구미도서관에서 “책 읽는 어린이 독서프로젝트 북스타트 운동”, 안동도서관의 “우리고장작가 바로알기”, 상주도서관의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정보센터의 “책나라 페스티벌” 등 각 기관이 특색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평생학습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특성화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맞춤형 독서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독서인구를 유치하여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차별화를 시도한 새로운 독서사업이다.

[기사출처: 경상북도 교육청 보도자료, 11월 28일자, 12월 19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연찬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학교도서관, 세계를 향한 교육의 출발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17일(수)과 18일(목), 양일간, 문학월드컵컨벤션센터 미추홀에서 열린 이 연찬회는 400여명의 학교장들이 참석했다.

학교도서관 교장연찬회는 학교도서관에 대해 학교장의 이해와 협력이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계획됐으며 이 연찬회를 통해 학교장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력을 높이고 탐구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프로그램

〈특강〉

-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과제/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표 및 강의〉

-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의 협력사례/김선태(서구도서관 관장)
- 학교도서관 활용을 통한 독서교육/이해화(전 화수고등학교 교장)

[기사출처: 전국매일 인터넷신문, 12월 19일자]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문화 어울마당 개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12월 17일(수), 명동성당 꼬스트 홀에서 “2008 학도넷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교도서관 운영주체인 학생, 사서, 교사, 학부모, 문현정보학계, 출판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 숨은 끼를 발산하고 더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위한 만남과 어울림의 장이 되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학생, 사서,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사계절, 휴머니스트, 창비, 뜨인돌 등이 후원하였다.

■ 프로그램

- 놀이로 시작하는 대동제/고무신학교 고무신 진행
- 빛과 그림자가 만난다: 그림자극 봉산탈사자춤 / 문화기획 ‘오월오일’
- 플래시몹: 귀여운 울동/ 도동리
- 연극 ‘세상에 책이 사라진다면’ / 관악중 도서반
- 연극 ‘인생’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서교사
- ‘어느 사서교사의 일기’ / 서울지역초등학교 사서교사모임
- 노래극 ‘박타세’ / 어린이책을 읽는 사서모임
- 유럽도서관과 만나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출판계 신하기족: 김용희, 조채린(홍제초5), 조채원(홍제초3), 보리가족 흥겨운 국악마당 (이옥환, 최은희)
- 나팔꽃 시노래 공연/ 백창우, 김현성, 김용택선생님
- 닫는마당: 놀이로 닫아요/ 고무신학교 고무신 진행

위덕대학교, 제10회 전국위덕독서대상 행사시상식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처장: 엄철환)에서는 10월 한달간 청소년들의 독서의식을 높이고자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전국위덕독서대상’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의 선정도서는 199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자들의 도



시』와 「모래의 여자」(아베고보 저), 「여자전」(김서령 저), 「슬픈열도」(김충식 저), 「끝없는 벌판」(응웬옥뜨 저), 「X염색체의 복수」(올리비에 포스텔 비네이 저), 「디지로그」(이어령 저), 「멸치」(김주영 저), 「셰익스피어 그림으로 읽기」(권오숙 저), 「시계태엽오렌지」(언서니 버지스 저) 등 이었다. 이 중에서 한권을 골라 독서감상문을 작성 공모한 것으로, 전국 65개교에서 총 855편을 응모하였으며, 심사결과 본선에 120여 편이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심사는 위덕대 관련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이정옥 교수)들이 맡았으며, 아베 고보의 「모래의 여자」를 읽고 “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그것은 희망”이란 제목으로 응모한 포항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지욱 학생이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장학금 50만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상패와 장학금 30만원, 가작 수상자 5명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20만원, 입선 21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전국위덕독서대상은 인터넷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점점 식어져가는 청소년들의 독서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대학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0회 전국위덕독서대상 응모작 심사결과]

- 최우수상 : 김지욱(포항고등학교 2-3)
- 우수상(2명) : 조영근(시흥 서해고등학교 1-6) 김지수(용인 보정고등학교 2년)
- 가작(5명) : 이희평(부산 광명고등학교 2-3) 권예은(포항영일고등학교 3-4)

박소라(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2-11) 전승지(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1-1)
최세진(울산 학성여자고등학교 2-5)

· 입 선(21명)

변기동(포항고등학교 2-1)	양원모(시흥 서해고등학교 2-13)
홍성윤(포항고등학교 2-8)	왕이슬(시흥 서해고등학교 2-4)
백솔이(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1-7)	유경민(포항고등학교 1-3)
이수형(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2-3)	이재민(청주 금천고등학교 2-10)
박빛내(경남외국어고 2-영어과2)	김언호(시흥 서해고등학교 2-6)
박다정(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2-2)	박노홍(대구고등학교 1-1)
강연주(포항유성여자고 1-3)	김은지(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2-10)
최원지(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2-71)	홍두리(시흥 서해고등학교 2-1)
김보나(안양예술고등학교 2-5)	김경아(정읍 정주고등학교 2-4)
백향기(청주 금천고등학교 2-7)	황동욱(울산 신정고등학교 1-6)
송아영(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3-4)	

· 지도교사상(최우수작을 낸 학생의 지도교사)

포항고등학교(김미숙 선생님)

· 단체상(입선 이상 최다 입상 고교)

시흥서해고등학교(박명서 선생님)

[기사 및 사진제공: 위덕대학교 도서관, (054)760-1210]

북스타트 운동 전국대회 개최

미취학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북스타트 운동” 전국대회가 11월 14일(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던 활동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첫 번째 모임으로,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5개 지역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시연되었으며, 이송은 부천대 교수의 그림책 육아특강, 시라이 데쓰 일본 북스타트 대표의 일본사례 발표 등이 있었다.

1992년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국에서 시작돼 세계 15개국으로 퍼진 영·유아 대상 독서보급운동인 이 운동은, 국내에서는 서울 중랑구

가 200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고 현재 7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주초, LG화학의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개관

나주초등학교는 11월 18일(화), 새롭게 단장한 학교도서관 ‘비단고을 꿈샘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이 도서관은 LG화학이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1억원의 금액을 지원하여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도서도 함께 기증하여 어린이들의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LG화학의 사회공헌 활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건강한 꿈을 키우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까지 고려한 활동이다. 특히 나주초등학교는 LG화학 나주공장과 불과 500여미터 떨어져 위치한 학교로 지난 2007년 결식아동돕기 등 나주공장과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2007년에도 ‘따뜻한 집만들기’, ‘불우가정 자매결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문화 실천을 ‘기본 목표’로 하여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출처: 호남일보, 11월 20일자]

동서식품과 스타벅스, ‘꿈의 도서관’ 행사 개최

동서식품(회장: 김용언)과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회장: 하워드 숄츠)는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의 론칭 1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 시흥초등학교에 영어책 200권을 포함한 3,800 여권의 도서를 전달하는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꿈의 도서관 행사’를 11월 20일(목) 개최하였다. 한국의 파트너사인 동서식품과 함께 진행한 이 행사는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쉐어드 플래닛: 함께 나누는 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디스커



버리즈 컵커피의 국내 런칭 1주년을 기념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스타벅스 국제소비상품 그룹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진행된 사회 공헌 행사이기도 하다.

도서관의 개관을 통하여 시흥리는 마을 최초의 도서관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물론 1천여명의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 개관식에는 스타벅스 국제소비상품부문 대릴 김 이사, 동서식품 홍승수 상무를 비롯하여 제주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 서귀포시 오중홍 교육청장 등 지역 인사들과 주민과 어린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사출처: 동서식품(http://www.dongsuh.co.kr/social/social_respon_01.asp?Seq=56), 11월 28일자]

국외소식

이란출신 백만장자 역사학자 하킴자데, 영국국가도서관 등에서 8년간 고서적 절취

영국에서는 이란 출신의 자산가로 올해 60세인 파르하드 하킴자데(Farhad Hakimzadeh)씨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라인 도서관(Bodleian Library in Oxford), 영국국가도서관

(British Library: BL) 등을 드나들며 수백년 된 고서적의 날장들을 잘라내 반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가 손을 댄 귀중 도서는 모두 150권으로, 1527년에 만든 책에 끼여 있던 3만 파운드(약 6,700만원)를 호가하는 고지도와 1621년 예수선 교회 책의 페이지 등도 절취했다. 이로 인해 대영도서관이 입은 손해만 해도 7만1,000파운드에 달하는 등 총피해액은 100만 파운드(22억3,400만원)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서적 전문가들은 범행의 대상이 된 책들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화유산이어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런던경시청에 따르면 하킴자데는 대출이 드문 책을 택해 몇 페이지만 떼어내는 등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수법을 썼다. BL의 고서전문가 크리스틴 젠슨 박사는 “영국의 중동 식민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손상됐는데 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는 하킴자데 본인도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는 또 “하킴자데는 전문가적 시각을 활용해 희귀 도서의 제일 중요 부분을 절취했다”며 “부자이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공공 자산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킴자데는 2006년 6월 BL에서 17세기 도서를 열람하던 이용자가 책에서 외과용 메스 흔적을 찾아내 도서관 측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전문가들은 하킴자데의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그가 8년간 대출했던 16세기 책을 비롯한 842권을 살살이 뒤졌으며, 하킴자데가 훔친 희귀본 수백쪽은 600만 파운드(135억원)에 이르는 그의 호화저택에서 그대로, 또는 같은 책의 복사본에 붙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자신의 컬렉션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그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 대영도서관에서 10차례, 보들라인 도서관에서 4건의 절도를 자백한 하킴자데는 2009년 1월 16일(금) 우드 그린 왕실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

졌다. 하킴자데는 이란유산기금의 고위 관계자이자 저명한 역사학자겸 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런던주재 자선단체의 총재직을 맡고 있다.

[기사출처: British Library(<http://www.bl.uk/news/2008/pressrelease20081121a.html>), 11월 21일자]

미국도서관협회, Midwinter 회의 개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매년 1월 개최하는 Midwinter 회의가 2009년 1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콜로라도주의 덴버

시 콜로라도 컨벤션센터(Colorado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도서관 현장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루는 이 회의에는 200개 이상의 토론클럽, 2,000개 이상의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등은 ALA의 웹사이트(<http://www.ala.org/ala/conferenceevents/upcoming/midwinter/home.cf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사출처: ALA Libraries in the News(<http://www.ala.org/ala/news/presscenter/news/index.cfm>)]

미국,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도서관 어려움 속에 자료대출 증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는 공공도서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산의 삭감 또는 폐관의 위기 등을 경험하고 있다. 샌디에고시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로 샌디에고공공도서관(San Diego Public Library)의 35개 분관 중 7개 도서관을 폐관하려고 하였으나, 시의회 투표결과 6대 1로 통과되지 않아 2009년 6월30일까지 폐관이 유예된 상황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은 지난 3개월간 도서관의 대출이 8%나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나, 시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6개월 후에는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 또한 샌디에고시는 2009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5% 삭감하여, 건립된지 54년된 샌디에고시 공공도서관의 본관 신축 등이 필요한 도서관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필라델피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54개의 분관을 지닌 필라델피아 공공도서관(Free Library of Philadelphia)의 분관 11개관이 폐관됨에 따라 111명의 도서관직원이 실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2009년 예산은 20%가 삭감되었다. 그 외에도 뉴욕주와 피닉스 등에서도 심각한 예산삭감의 어려움을 겪는 등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각 지역의 재정적자는 공공도서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호주머니가 가벼워진 미국인들이 책을 사기보다는 대출하는 걸 선호하면서 주요 공공도서관에는 책과 비디오를 빌려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의 경우 올해 도서관 자료 대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10월 팜 지역 도서관은 대출건수가 27% 급등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도 대출건수가 11~12% 정도 늘었다. 피터 퍼시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도서관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이 현상을 설명했다.

[기사출처: The San Diego Union Tribune(http://www.signonsandiego.com/uniontrib/20081125/news_1n25cuts.html#), 11월 25일자/Library Journal(<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618854.html>), 12월 15일자/세계일보, 12월 4일자]

랜덤하우스, e북 시대 연다

미국의 유명 출판업체 랜덤하우스가 수천 권에 이르는 주요 서적들을 디지털화해 e북으로 판매하겠다

고 11월 25일(화) 밝혔다. 랜덤하우스의 추가 e북 목록에는 존 업다이크와 할린 코벤의 소설을 포함해 '매직트리하우스(Magic Treehouse)'와 같은 어린이용 도서 시리즈도 포함된다. 랜덤하우스는 조만간 1만 5000권에 육박하는 디지털 도서관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마르쿠스 돌레 랜덤하우스 CEO는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형식(electronic format)으로 읽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서 "랜덤하우스는 서적의 디지털화 작업을 확대, 더 많은 책들을 e북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8000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매트 샤츠 부사장은 "2008년에 아마존닷컴이 내놓은 전자리더 '킨들' 덕분에 e북이 3자리수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출판 시장의 1% 가량이 e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사출처: 전자신문(<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1250080>), 11월 2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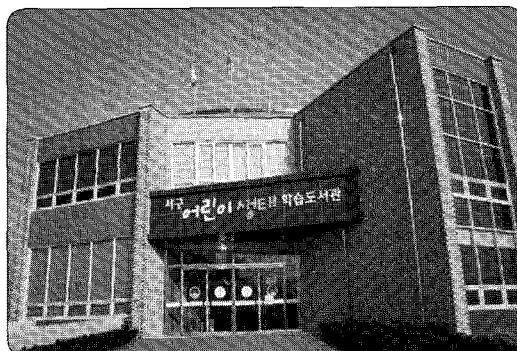
제75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사전등록 및 발표 논문 공모 시작



2009년 8월 23일(일)부터 27일(목) 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공식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또한 각 분과별 발표논문의 공모, 포스터세션 참가신청, 전시회 참가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중이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http://www.ifla.org/IV/ifla75/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대회의 사전등록 마감은 5월 15일(금) 까지이다.

신설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 개관 : 2008년 11월 26일(수)
- 면적 : 대지면적 2,268m² / 건축면적 1,323m²
- 관장 :
- 주소 : (502-15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14-50번지
- 전화 : 062-350-4582
- 팩스 : 062-652-9247
- 휴관일 : 매주월요일(정기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특징 :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도서 7,600여권, 비도서 100여점의 자료를 갖춤. 지하 1층에는 부설주차장(11면) 및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이야기방이, 지상 2층에는 시청각실 겸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자원봉사자휴게실, 서고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생태연못 및 노상주차장(70면)이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풍암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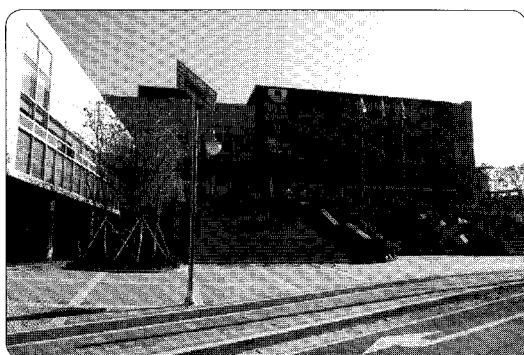
문래정보문화도서관



- 개관 : 2008년 11월 14일(금)
- 면적 : 1,796.44m²
- 관장 : 임경자
- 주소 : (150-09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14(문래동3가 98)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14(문래동3가 98)
- 전화 : 02-2629-8600
- 팩스 : 02-2629-8601
- 홈페이지 : <http://www.mllib.or.kr>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특징 :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일반서 11,125권, 유아서 1,668권, 아동서 6,165권, 비도서 913점의 장서를 갖춘. 지하 1층은 기계실이, 지상 1층은 고객만족센터와 어린이(유아)열람실이, 지상 2층은 사무실과 도서정리실·문화강좌실이, 지상 3층은 종합자료실이, 지상 4층은 전자정보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지상 5층은 일반열람실과 휴게실이 있음.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 개관 : 2008년 11월 13일(목)
- 면적 : 부지면적: 17,000.1m² / 연면적: 5,554.50m²
- 관장 : 조소현
- 주소 : (456-310)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89
- 전화 : 031-678-5300
- 팩스 : 031-678-5309
- 홈페이지 : <http://apl.go.kr>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특징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도서 125,871여권, 비도서 4,696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서고, 기계실, 지상 1층에는 종합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지상 2층에는 평생학습 강좌실, 전시실, 다목적홀, 매점, 사무실이 있음.